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제7호 · 2000년 3월 1일 발행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 동문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

목회를 철학하는 심정으로

동문회장 **이 승 하**

안녕하십니까? (샬롬)

저는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61년도에 학사 편입하여 63년도에 졸업한 이승하 목사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것이 얼마나 저의 목회에 힘이 되는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느낍니다. 그 이유는 많이는 못 읽지만 철학에 관한 책을 잊지 않고 읽고 있다는 것이요, 거기서 현실의 감각적이거나 물량적 또는 경영적인 목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고의 목회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병욱 교수님의 서양철학 강의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조요한 교수님, 그리고 강사로 출강하셨던 김형석 교수님, 김석목 교수님 등의 강의는 과연 철학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목회에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적 목회라는 말이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다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신앙 생활의 경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신앙이란 축복으로 삶의 윤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신앙이란 본질적이고 영적인 생활의 근본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른 목회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철학과 동문들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철학과 동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지난 회기동안 박근용 목사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금년에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별로 협력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아름다운 철학과 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기분 좋게 모여서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 철학과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잘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주 만납시다. 오늘도 숭실대학교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 기독교 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협력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모교 철학과에 재직하시는 동문 교수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숭실철학강좌가 있을 때나 다른 이름의 모임이 있을 때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회 · 서울 해방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 후원이사회 이사장)

◇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

최 명 관 지음

현 실 의 구 조

(숭실대학교 출판부 펴냄)

1편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이 알아서 유익한 사상 문제들을 다루었다. 청소년기의 상황과 정신적 고민, 현실과 이상, 사회와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자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청소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질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사상적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편은 우리의 절실한 현실문제를 생각하면서 거기 관련된 철학의 문제들, 특히 오랜 세월에 걸쳐 뛰어난 철학자들이 진지하게 사색해온 철학의 근본 문제들인 하나님, 실재, 정신과 신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역사 등에 관한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시시비비를 가렸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가 반드시 옳다고는 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저자로서는 진지하게 사색하고 겸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저자 「머리말」에서. (1만원)

안 병 욱 지음

나를 위한 인생 12장

(자유문학사 펴냄)

나는 삶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80년의 긴 생애를 살아왔다. 영원 속에 오직 한 번 주어진 이 고귀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이 문제를 풀려고 20대에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동서고금의 여러 철학자와 사상가의 책을 읽고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했다.

나는 지식이 풍부한 학자가 되는 것보다도 지혜가 충만한 현인(賢人)이 되고 싶었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되고 싶었고, 총명(聰明)이 빛나는 애지인(愛知人)이 되고 싶었다.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에 서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책에서 삶의 열두 가지의 지혜를 다루었다. 생명, 진리, 사랑, 만남, 학문, 직업, 성실, 보람, 성공, 건강, 수양, 자아실현 등 인생의 중요한 12장에 대하여 나의 사색을 정리했다. — 저자 「머리말」에서. (7천원)

□ 同門斷想 □

나의 스승은…

정 기 철

지나가 버리고 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었다.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시간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기 전만 해도 시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답하려고 하자 시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는 과거나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있는 것은 과거의 것들의 현재와 현재의 것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것들의 현재만이 있다고 했다. 그것들은 기억과 직관 그리고 기대 속에서만 의식될 뿐이라고 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잘 기억하여 그 때의 일을 쓰는 것이다. 기억된 내용에는 계속 기억하고픈 것들도 있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많다. 기억된 내용의 확실성도 보장 못한다. 그는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 회개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나는 특히 많은 사람과 관계들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다. 반면에 감사해야 할 일들도 많다. 많은 감사해야 할 일들 중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해직교수로 목숨처럼 여기던 강단을 떠나야 했던 조요한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건 분명 슬픔이었지만, 그 분의 용기와 지성인으로서의 정의를 사랑하는 태도는 분명 존경해야 할 일이었다. 복직이라는 벅찬 승리와 함께 강단에서 가르칠 때의 일이다.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에게 너무 큰 행복이었던 같다. 강의를 듣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에 대한 열정과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학문에 대한 사랑을 피부로 느꼈다. 쉴 시간도 없이 계속되는 강의에 넋을 잃고 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학자는 저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으니까. 그 분은 늘 숨이 고파하셨다. 계단 오르내리실 때도 그랬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칠판 한 쪽을 다 채우고 다른 쪽을 분필가루가 휘날리지 않게 조심하여 지우고 밖에 나가 깨끗하게 털어 오는 일이었다. 그 일이 내게 기쁨이었다. 화장실 앞에서 마주칠 때의 일이었다. 손을 잡아주시더니 물으신다. 요즈음 공부 열심히 하는가? 그 일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교수상을 바꾸게 만들었다. 교수는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스승이어야 한다는 것을. 년 초에 세배하려 집을 찾았을 때 다정하게 대하시던 모습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었다.

지금은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지금도 학문성, 곧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은 교수가 갖추어야 할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교수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수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다. 학문은 경륜이 쌓이니까 아주 적지만 뭔가 알아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다움은

아닌 것 같다. 인격과 학문을 겸비한 훌륭한 스승 아래서 배운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자주 찾아 뵙고 인사도 올리고 싶은데 그리 못하는 것을 무슨 핑계로 또한 용서를 구할까? 작년 학술대회 때 만난 그 분의 모습은 세월이 가져다주는 안타까움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그 모습에서 내 나이에 맞는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이 들어 품위 있게 늙어 가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그것은 강단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 스승은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58회 · 호남신학대 교수)

◇ 역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

김 재 홍 옮김

소 피 스 트 적 논 박

(한길사 펴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적 규칙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철학자, 정치가, 소피스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운동경기를 즐기듯 쟁론적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여러 사회적 · 정신적인 현실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인 문제까지도 쟁론술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하였다. 교양인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르침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로써 싸울 수 있어야 했고, 논증을 구성하는 기술, 적을 공격하는 기술, 적을 논박하는 기술, 직업적인 논쟁꾼(소피스트)의 기술을 마스터해야만 했다. (8천원)

유 현 상 · 박 은 미 옮김

5 0 인 의 철 학 자

(시공사 펴냄)

이 책에서는 서양철학자들 중 50인의 주요 철학자를 선정하여 그들 사상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그 철학자의 생애와 다른 철학자의 사상과 관련되는 측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철학자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상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 이는 그 철학자의 사상이 왜,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대표작과 연관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철학자와 그 저서에 대해 동시에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철학자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마다 그와 연관되는 철학자의 이름을 나열하였고, 그 철학자의 주요 저작과 더불어 더 읽을 거리를 소개하여,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9천원)

(5면에서 계속)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언제나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 또는 모순적이고 비실용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주도하는 이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유학의 실학적 반성을 조선조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율곡의 실학적 실리이다. 율곡의 실학적 실리는 도학적(道學的) 실리의 이념적 순수성, 인륜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나아가 이념의 현실적 적용이 더욱 강조되던 시대상을 반영한다. (59회 · 숭실대학교 강사)

◆ 나의 학위논문 ◆ 숭실대학교, 2000

율곡의 실리사상에 관한 연구

김 태 완

이 논문은 책문(策文)을 중심으로 하여 율곡(栗谷)의 실리(實理) 사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실리'란 관념적 이(理)가 아니라 실제적, 실용적, 현실적 '이'라는 뜻이다. 율곡의 실리사상은 그의 이기지묘(理氣之妙)의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념과 현실,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율곡의 철학적인 관심과 출발점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리 의식이었다.

율곡은 이(理)와 기(氣)가 만나고,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음으로 존재가 형성되고 인간의 다양한 의식과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본원(本源)과 현상(現象), 이념과 현실이 언제나 맞물려 돌아가야 존재와 당위의 진정한 이상을 실현한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성(誠)으로서 천도(天道)를 실현하고 인간은 성(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천도를 이 땅, 이 현실에 실현하여 인도(人道)를 완성한다. 하늘의 성(誠)은 곧 실리의 전개이며, 인도의 성(誠)은 실리를 내면에 간직한 실심(實心)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다. 따라서 인간이 마음을 바로 잡아 덕을 닦아서 하늘과 땅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자연 현상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율곡이 자연을 실리로 보는 것은 결국 자연의 모든 현상이 인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인간 또한 자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도 실리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건강과 수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유교 문화에서는 제사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내세관이 없는 유학에서 종교적 문제와도 결부된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매우 예민하고 누구나 관심을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세를 담당한 정치 주체로서 합리적으로 해명해야 할 문제이다. 율곡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당시의 도교적 양생술은 종교적 만족을 주고 장수의 소망을 채워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허황된 설화를 바탕으로 혹세무민하는 요소가 많아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그래서 율곡은 유가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생(養生)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맹목적인 장생(長生) 추구가 아니라 건전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인 기질을 배양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접근해야 한다.

율곡은 갖가지 상소와 대책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나라의 근본인 인민의 삶을 안정시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런 노력은 경세가로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의 면모를 잘 나타낸다. 현실 문제는 규범으로 접근하는 측면과 이해(利害)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둘은 득중(得中)하고 합의(合宜)함으로써 규범과 실리가 조화될 수 있다. 곧 의리와 이익(利益), 이념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율곡 실리론의 특징이다. 율곡의 때는 이미 유교적 보편 이념의 담지자로서 사림이 국가의 운영을 주도하던 때이므로 이념의 현실적 적용이 주요 관심사였다. 율곡이 남달리 경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인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학은 (4면으로 계속)

□ 同門을 찾아서 □

어린 왕자를 사랑했던 시간 속으로...

— 영화감독 차현재 선배를 만나다 —

· 인터뷰: 이성준(동문회 간사 · 대학원 석사과정), 김정미(학부 4학년), 유지영(학부 3학년)
· 정리: 김정미(학부 4학년)

#0. 에필로그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그 물음의 대상이 미지의 인물에게 향한 다면 '그는 누구인가'로 바뀌게 된다. 데카르트가 사유했던 존재론적 질문들… 오늘 한 사람을 만난다.

#1. 만남

연일 매서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다. 따뜻한 코트에 목도리까지 걸쳤지만 역시 춥다. '차현제 선배님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70학번, 영화감독, 「방황하는 별들」(85), 「그 여자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90)라는 두 작품을 하셨다는 정도였다. 선배님의 첫 인상은 너무나 좋았다. 벙거지 모자에 사람좋아 보이는 미소를 띠고…

"내가 좀 늦었죠? 어구 이런 미인들을 만나다니 영광이군요". 선배님은 이후 줄곧 '미인'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 하하… 차현재 선배님은 70학번이라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외모와 두꺼운 안경과 토종 서울말씨를 가진 호탕한 예술가였다. 참고로 이날의 인터뷰는 아구찜에 소주를 먹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맥주로 이어진 장장 5시간 이상의 멋진 만남이었음을 밝힌다. 매서웠던 추위를 녹여 버릴 만큼!

#2. 과거

— 학교는 어떻게…

70년도에 입학해서… 그때 여기는 도로 포장도 안 되었고… 여기가 그 유명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갑 없이는 못사는 데였어. 하하 일동 웃음 (모두 합창함; 지금도 그래요!) 겨울되면 산풍 몰아치고…

— 학교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건 안 좋아요. 특히 과학관 옆에 건물이 참 이뻤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과학관이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징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 한경직 기념관 있잖아요(?)

일동 웃음 하하하. 지금의 인문대 건물도 그 자리에 3층 건물이 있었고, 반은 도서관으로 함께 사용하고… 지금 교수님실 있죠? 그것이 크레믈린이라는 기숙사였고, 도서관 자리에 햐얀 2층집이 있었어요. 화이트 하우스. 그 밑이 여학생 기숙사. 그때 참 이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그쪽으로 왔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 가로등이 없으니까요? 하하

학교다니실 때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때는 사람들이 300정도 됐기 때문에, 그 중 2/3는 기숙사에 있어서, 하루 세끼를 같이 먹고 하니까 거의 다 알죠. 사실은 숭실대학교 학교 내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운 건 우리 때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교정 내 에서는 담배를 안 폈어요. 그때는 친교

실에서… 남자 친교실, 여자 친교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그걸 못피게 했죠. 그때 시 잘 쓰는 남태연(?)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김필신이란 친구랑. 나는 그때 안 폈어요. 왜 안 폈나 몰라? 몇 명이서 잔디에서 술 먹다가 걸려갔고 일주일 정학!

— 술 먹었다구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그것도 많이 봐준거예요. 무기까지 갈려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김능근 교수님이라고 동양철학 하시는 할아버지가(우리는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하) '이건 안 된다. 요새 젊은애들이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주정한 것도 아니고, 정말 새우깡 한 봉지에 소주 한 병, 먹은 건데, 그건 심하다'고 그래서 일주일 정학으로 끝났죠.

— 새우깡에 소주요! 하하 그 시절에도!

그럼요! 라면땅일수도 있겠다… 하하. 그때는 통행금지라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은 없어졌던데, 백운파출소라고 숭실대학 담당 파출소가 있었어요. 순경들이 철학과 학생이면 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행금지가 없었죠. 밤에도 돌아다녔죠. 조요한 교수님 댁이 요뒤에 있었거든요. 나 조요한 교수님이랑 목욕도 같이 했어. 하하하. 지금도 백운목욕탕 있죠? 아침에 내가 먼저 들어갔나, 조 교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목욕할 때 안경을 벗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 교수님이야. 그 분도 나를 본 것 같아. 살짝 도망갔지? 하하. 재밌는 얘기 많아요 진짜. 그래서 대학별곡 2편을 쓰면 내가 써야 돼요.

#3. 철학&영화

— 철학을 공부한 게 살아가는 데나 영화를 만들 때 도움을 준 것 같나요?

그게 참 재밌는 얘긴데, 내가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고민을 했는데… 하… 그게 참… 어떨 땐 방해가 돼요. 왜냐면 철학을 안 했으면 영화를 쉽고, 재밌고, 흥행되게 만드는데, 철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성격이 그런 건지… 우리 교수님이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안병욱, 최명관, 조요한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너무 완벽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밑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아무렇게나 영화 못 만들겠더라구요. 최명관 교수님께 논리학 배웠죠?

— 저희는 그냥 말로만…

세상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한테 불어원강을 하신다? 그래도 그런 분들땜에 요만큼도 섣부르게 무엇을 못하게끔 돼버렸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영화할려면 상당히 방해를 받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들하고 똑같이 영화할려면 뭣 하러 하냐? 장사를 하든가 하지… 남들하고 다른 영화를 하고 싶은… 정말 대 숭실대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 개떡같은 영화를 만들 순 없지 않느냐! 제가 70년대 영화할 때 호스테스 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별들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그때 어떤 제작자가, 젊었을 때니까, 너 호스테스물 잘 만들겠다 했죠. 그러나 며칠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걸 만들면 안 되겠더라구요. 나까지 휩쓸려서 그걸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저거 미친놈 아냐? 그러더라구요. 철학과 나온 게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됐죠? 하하하 방해의 의미를 잘…

— 제가 경험한 건데 공부 좀 하고 철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많이 알더라구요. 그래서

'그 학교 다녀요' 하면 다시 보더라구요, 정말.

그럼! 내가 71년도에, 진짜 에피소드에요. 여름 방학때 안면도에 엠티를 갔어요. 그 당시에 안면도가 깡패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걔네들이 묻더라구요. 어느 대학교 다니냐고… 숭실대 다닌다고 하니까. 안 교수님 아냐고… 그 당시 안 교수님의 수필, 수상집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안 교수님이 우리 주임교수님이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교수님 댁에서, 안 교수님 댁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밥도 먹고 뭐… 하하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저녁 술 한잔 살 테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얻어 터지지 않고 오히려 술 얻어 먹고…

— 영화는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어렵더라구요…

아니 철학하는 사람이 영화를 어렵다면 어떡해? 철학과 나왔으면 잉그리드 베르히만 정도는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영화로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타르고프스키, 키에슬로브스키, 이런 사람들은 영화로 철학을 하니까요. 요즘엔 짐 자무쉬 정도.

—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는요?

아까 얘기했던 감독들까. 나는 영화 다 좋아해요. 포르노만 빼놓고… 근데 거짓말하는 영화는 안 좋죠.

— 「거짓말」은 보셨나요? 하하

거짓말은 안 봤는데… 나는 영화는 아무리 어려운 영화를 만들고 철학적으로 만들어도 영화 자체가 나 잘났지? 하는 영화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위악이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건데요.

#4. ???

— 20대 초반에 어떠셨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쳐봐도… 하하하. 진짜에요.

— 선배님 술 잘드세요?

술 없는 인생이 얼마나… 하하 지금은 안 먹는 편이에요. 기숙사에 있을 때 에어컨 보다 조금 큰 옷장이 네 개가 있어. 밖에서 먹은 건 모르겠고, 몰래 갖고 와서 방안에서 먹은 술병을 이렇게 꽂으면(상상하시길…) 한 학기가 지나면 꽉 차요. 그러면 그걸 매점에 가서 라면으로 바꿔 먹는 거죠. 엄청 먹었어요. 8학기 동안 제대로 다녀본 때가 4학년 2학기 딱 한 학기예요.

— 철학과 나온걸 후회한 순간은?

한 순간도 없죠. 철학과 나온 게 후회가 될 수가 없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고 풍요로웠던 때가 숭실대학 4년뿐이었어요. 진짜로… 그건 내 친구들한테나 사람들에게 이 얘길 수십번 했는데, 숭실대학교 다닐 동안 공부도 못했고, 성적표도 아마 끔찍할 거에요. A학점 나온 건 미학 하날 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배움의 전부였고, 자양분이 된 거죠.

— 좀더 다르게 대학시절을 보냈다면 지금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아마 일찍 죽었을 껄요. 연극이나 영화말고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키에슬롭스키 영화를 보면은 우연이 많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게 있거든요. 사실… 필연이에요. 운명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운명까지는 거창하고… 아! 재밌는 얘기 해 줘야 겠다. 숭실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다들 그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들어온 거고 니네들 다 공부 못하는 놈들… 그때는 대부분 무시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등학교는 좋은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쩌다 실수해서 여기 온 거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 만나는 매력은 진짜 상상을 못해요. 나도 역시 초기에, '나는 경동에서 공부 잘하고 했는데 어쩌다 여기 오니까' 하고… 기숙사에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어떨 땐 잠옷 입고 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오죽 했으면 기숙사 여자 사감이

'미스터 차 그러지마! 좀 깨끗이 하고 다녀!' '아니예요. 수업 들어 갈 땐 깨끗이 하고 가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게…

— 나는 너네와 다르다 뭐 이런거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자기 자학이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어린 왕자』 번역판이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아! 내가 세상 되게 잘못 살고 있구나!' 그날부터 머리도 잘 빗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랬어요. 하하하

— 『어린 왕자』 중에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첨부터 다 읽어줘도 돼요? 호… (감탄사!) 그건 농담이고… 다들 아는 길들인다는 구절… 많죠? 뭐… 얘를 들어 어린 왕자가 장미 한 송이 가지고 얼마나 분통한지 계속 엉엉 울다가, 장미를 위해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며…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 교수님들에게 뭘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배운 시간 때문에 그분들에게 실망을 끼칠 일은 못하죠.

— 20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사실 그때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어린 왕자』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애도 열심히 했어요. 어린 왕자 식의 몰두, 빠짐, 이런 것을 열심히 했죠. 어떤 일이든지. 특히 연극을 열심히 했죠. 그때 숭실대학에서 차현재 모르면 간첩이었으니까. 오죽하면 미팅한번 못 해봤겠어요. 축제 한번 참가 못하고, 왜냐면 축제 때 연극공연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학기 시작되면 작품 골라서 공연 끝나면 축제 끝나는 거죠. 사실 내 꿈은 영화감독보다는 연극배우, 영화배우였었어요. 지금도 그 꿈은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하얀 전쟁 봤어요? 거기 나 나와요. 신문사기자로… 하하하

#5. 말

— 숭실대 철학과를 다니고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가 의지 한 것을 밀고 나가는… 두려움은 없어요. 죽을 때는 두려울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밀고 나가면 다 돼요. 될까 말까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 영화감독도 다 베르히만이나 스필버그처럼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베르히만도 되고 싶지 않고, 스필버그도 되고 싶지 않거든. 내 좋은 영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것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의지 데로 나가면 다 돼요.

— 동문회에 하고싶은 얘기는?

그건 진짜로 어렵다. 왜냐면 내가 동문회한테 한 것도 없고, (미안해요…) 신경도 못 썼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바란다는 건 어렵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 강태보 형 같은 경우처럼… 그런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애. 우리가 후배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돌맹이 하나에도 감동 받을 수 있잖아요. 꼭 학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분들의 심성을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6. 헤어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누구일까'로부터 '나는 누구일까'라는 의문들로 이어진다. 한 존재와의 만남은 결국 그를 통해서 나를 알아 가는 과정이 아닐까? 차현재 선배님과의 만남 뒤에 『어린왕자』를 다시 읽었고, 선배님의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철학을 공부하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 글로 옮기지 못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하다. 언제 어느 순간… 이런 짧은 만남들이 내 인생을 바꿔 놓을지 알 수 없음을 알기에…

동문회

Ⅰ. 동문회 행사

▶철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1999년 11월 18일 모교 과학관 103호에서 철학과 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사업 및 재정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에는 이승하 동문(35회 · 해방교회 담임목사)이 선출되었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이사 선임은 신 · 구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에는 박덕신 동문(39회 · 수유감리교회 담임목사)이 유임되었다.

▶회장단과 이사회 구성

총회의 위임에 따라 동문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장단과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 회 장: 이승하(35회)
- 부회장: 한정탁(32회), 최기만(33회), 김기순(34회), 정영환(34회), 이만신(35회), 김상학(36회), 권명달(37회), 임순삼(38회), 박종순(40회), 황종근(45회), 홍진일(53회), 김복영(대학원)
- 총 무: 한석환(49회)
- 감 사: 박덕신(39회), 우성두(48회)
- 이 사: 장덕수(30회), 이면호(31회), 현순호(31회), 유연왕(35회), 손영호(36회), 홍정길(36회), 김태규(37회), 김선태(38회), 장재덕(38회), 유영묵(40회), 이명수(40회), 나겸일(41회), 노용한(42회), 권재명(43회), 김영규(43회), 조성기(43회), 강태보(44회), 목창균(44회), 이은주(44회), 박삼우(46회), 하정관(46회), 김재욱(47회), 나 성(47회), 유원열(47회), 이진희(48회), 최리균(48회), 강준수(49회), 곽신환(49회), 박상선(50회), 안흥순(50회), 제갈창수(50회), 문현재(50회), 홍인종(51회), 김승국(52회), 김인석(52회), 강형철(53회), 박동준(53회), 홍성하(53회), 이윤일(54회), 김선욱(55회), 임형섭(55회), 한상화(56회), 홍여석(56회), 박금희(57회), 정주기(57회), 황형택(57회), 정기철(58회), 최명환(58회), 김재진(58회), 곽요셉(59회), 김태완(59회), 문시영(59회), 박삼열(60회), 고승원(61회), 김양호(61회), 안영민(61회), 오지석(61회), 최진섭(61회), 지성철(62회), 최한빈(62회), 김국영(63회), 김지현(63회), 이종원(63회), 김광현(64회), 명현수(64회), 양황승(64회), 김병매(65회), 김 영(65회), 서경석(65회), 유현상(65회), 이주현(65회), 배한진(66회), 권일훈(67회), 장세철(67회), 김종걸(대학원), 김기상(대학원), 박도현(대학원), 최태연(대학원), 이흥우(대학원)

▶이사회 및 신년하례식 개최

동문회에서는 2000년 1월 13일 오후 5시 모교 사회봉사관 튤립 홀에서 새해 첫 이사회를 열어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신년하례식에는 약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새 천년을 맞이하는 각오와 다짐을 비롯한 덕담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 자리에서 이승하 동문회장은 자신이 후원이사회 이사장으로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에서 펴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1999)를 참석자 모두에게 한 권씩 선사하였다.

Ⅱ. 동문 동정

▶김진경 동문(30회 · 중국 옌볜과학기술대 총장) 1999년 11월 9일 모교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에서 거행된 「제2회 숭실인상 시상식」에서

베어드교육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2000년 2월 9일에서 11일까지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숭실대학교 제27회 교수신앙수양회에 초청을 받아 신앙강좌를 열기도 했다.

▶**이승하** 동문(35회 · 동문회장, 해방교회 목사) 1999년 11월 9일 모교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에서 거행된 「제2회 숭실인상 시상식」에서 추양목회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영환** 동문(34회 · 청운교회 목사) 그 동안 시무하던 대구 제일교회를 사임하고 금년부터 임지를 서울 청운교회로 옮겼다.

▶**권영진** 동문(35회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999년 12월 17일 열린 「숭실대 동문교수장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감사로 피선되었다.

▶**류순하** 동문(37회 · 숭실대 교목) 2000년 2월 29일 18년 근속한 숭실대학교를 정년으로 퇴직했다.

▶**차현재** 동문(46회 · 영화감독) 1999학년도 제2학기부터 숭실대 인문대학에 출강, '영상예술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다.

▶**김재홍** 동문(56회 · 숭실대 박사) 2000년 1월부터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캐나다 토론토대학 철학과에 체류중이다. (E메일: jh. kim. b@utoronto. ca). 그는 1999년 12월 『소피스트적 논박』(아리스토텔레스)이라는 역서를 한길사에서 내기도 했다.

▶**임장순** 동문(60회 · 장애인 전산프로그래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소프트웨어연구소장으로 있는 동문은 199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보건복지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최태연** 동문(대학원 · 베를린 자유대 박사) 2000년 3월 1일 천안대학교 기독교철학과 교수로 부임한다.

▶**이장형** 동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그 동안 재직하던 숭실중-고등학교(교목)를 사임하고 금년부터 분당 가나안교회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다.

▶**윤은주** 동문(64회 ·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0년 3월 1일부터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야간) 조교로 부임한다.

▶**유현상** 동문(65회 · 한국방송통신대 교양학부) 부인 박은미(이화여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와 함께 1999년 11월 『50인의 철학자』(다이아네 콜린슨 지음)라는 제하의 역서를 시공사에서 냈다.

▶**권일훈** 동문(67회 · 신천교회 전도사) 그 동안 시무하던 평안교회를 사임하고 금년부터 임지를 신천교회로 옮겼다.

▶**유재민** 동문(69회 ·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2000년 3월 1일부터 인문대학 언론홍보학과(야간) 조교로 부임한다.

▶**차봉준** 동문(70회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0년 2월 19일 11시 여전도회관에서 신부 김은정 양과 화촉을 밝혔다.

▶**문영식** 동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2000년 3월 1일부터 철학과 조교로 근무한다.

▶**이성준** 동문(72회 ·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2000년 3월 1일부터 철학과 조교로 근무한다. 아울러 그는 우리 **동문회 간사** 일도 겸임한다.

▶**백두환** 동문(72회 ·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2000년 3월 1일부터 기독교사회연구소(소장 이삼열 교수) 조교로 부임한다.

▶**현종철** 동문(72회 ·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

사과정 재학) 2000년 3월 1일부터 생활관 조교로 부임한다.

철 학 과

Ⅰ. 철학과 교수 동정

▶**최명관** 박사(명예교수) 1999년 11월 『현실의 구조』란 제하의 역저를 숭실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상재(上梓)했다.

▶**조요한** 박사(명예교수) 1999년 11월 9일 모교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에서 거행된 「제2회 숭실인상 시상식」에서 형남학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삼열** 교수(사회철학) 2000학년도 제1학기에 연구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부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체류중이다.

▶**곽신환** 교수(동양철학) 1999년 12월 17일 열린 「숭실대 동문교수 장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총무로 피선되었다.

▶**한석환** 교수(서양고-중세철학) 2000년 제1학기에 신설되는 인문대학 언론홍보학과(야간) 준비위원장 일을 보고 있다.

Ⅱ. 학부 및 대학원 소식

▶2000년 2월 18일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인문대학 철학과에서는 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3월 새학기에는 1999년에 입학한 인문대 학생들 중에서 32명이 철학과 2학년으로 배정되어 현재 철학과 재학생 수는 90여명이 된다. 또한 올해에는 1학년 신입생을 「역사·철학과군」으로 모집하여 70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내년 3월 철학과와 사학과 중에서 전공을 배정받게 된다.

▶2000년 2월 18일에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박사 1명과 석사 1명을 배출하였다: 철학박사 김태완(학위논문: 『栗谷의 實理思想에 관한 硏究』), 문학석사 김준정(학위논문: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의 신학화 가능성 연구』). 그리고 3월 새학기에 석사과정에 5명이 진학하였다: 김윤희, 박현철, 백두환, 윤동성, 이성준.

주소 업데이트

▶**이승주** 동문(59회) 서울 동작구 봉천본동 931-7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총무팀장 〔Tel.〕 016-733-4802

▶**강준수** 동문(49회·보험업)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9-25 일신아파트 6동 404호 〔Tel.〕 011-771-4102

▶**최인수** 동문(69회) 〔자택〕서울 동작구 상도5동 78-101 3/3. 〔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902호. 〔전화〕 019-390-1972 (R)/558-6200(103·O)

알 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 **연 회 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 체 국 012948-0048513
  〔예금주〕 숭철동문(김기순)